



이스라엘 업데이트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8년 3월 9일

메르카즈 하라브 학살

“메르카즈 하라브(랍비 센터)”는 유명한 유대교 대학으로서, 예루살렘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학교의 이름은 이스라엘 초대 최고 랍비이자 종교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의 효시인, 설립자 아브라함 쿠크 Avraham Kook 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메르카즈 하라브는 유대-사마리아 지역 정착촌의 선구적 교육 기관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우익 종교 정치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25세의 일라 아부 다힘 Il'a Abu Dahim 은 가족이 운영하는 운송 업체의 소형 버스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 예루살렘 마을 개발 무크바르 Gebal Mukhbar 에서 아랍 노동자들 및 유대 학생들을 태워 다니곤 했습니다. 거주하던 이스라엘 시민권 소지자들로 구성된 아랍 마을에서 그는 비교적 친절한 이로 여겨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다힘은 한 테러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왔고 메르카즈 하라브 현장을 염탐해 왔습니다. 3월 6일 목요일 오전 8시 20분, 다힘은 자신의 승합차를 학교 입구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주머니엔 8발의 총알로 채워진 탄창과 두 대의 권총, 그리고 코만도 칼을 넣었습니다. 그는 칼라쉬니코프 자동 소총을 골판지로 된 TV 상자 안에 놓았습니다.

8시 반, 그는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3명의 학생들이 그를 쳐다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우리한테 TV 갖다 주려고요?” 다힘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상자를 석재 분리대에 올려놓더니 소총을 꺼내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그 세 학생 중 둘은 즉사했고, 한 명은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힘은 도서관으로 올라갔고 종교 서적을 읽고 있던 25명 이상의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다힘은 쉬지 않고 연이어 총을 쏘았습니다. 약 절반의 학생들이 겨우 옆방으로 몸을 피해 문을 닫았습니다. 다힘이 발포를 그쳤을 때, 8명의 학생이 이미 숨졌습니다(대부분 10대였죠!). 그리고 12명의 학생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 어떤 친구는 울며 다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됐잖아요… 그만해요…” 그러나 다힘은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다!)” 를 외치며 계속 쏘다고 합니다.

학교 옆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있던 이스라엘 군 엘리트 낙하산 부대의 다비드 샤피라 David Shapira 대장은 4 살과 2 살 된 자녀들을 막 목욕시킨 상태였습니다. 샤피라는 총소리를 듣고 처음엔 푸림(에스더 서의 부림절) 잔치를 하는 소리가 생각했으나, 곧 총탄 소리임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즉각 샤피라 대장은 자녀들을 아내에게 맡겨둔 채 자신의 소총을 집어 들고 학교로 내달렸습니다. 그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두 명의 경찰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뛰하는 겁니까? 방탄 조끼도 안 입었잖아요.” 그는 “비키십시오”라는 말을 남긴 채 계단을 올라 발포의 현장을 향해 갔습니다. 그는 문간을 지그재그 형식으로 뛰어다니며 사정 거리까지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선 채로 다비드는 총을 쏘고 테러리스트를 명중시켰습니다.

다시 샤피라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마저 재웠습니다. 그의 아내 호다야는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탓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샤피라는 지금껏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라며 어떠한 인터뷰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랍 세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마스나 헤즈볼라, 기타 지하드 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기쁨으로 자축하며 깃발을 흔들고, 사탕을 뿌려댔습니다. 반면,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 많은 아랍 지도자들은 테러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지도적 우익 종교 학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상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기상도나 팔레스타인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 내의 아랍 마을 출신이라는 것, 즉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이 아랍인 안보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시민권을 소지한 아랍인들을 위협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라면, 이스라엘 내의 테러 활동으로부터 어떻게 자위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 정부는 수십만 가운데서 누가 선량한 시민이고, 누가 잠재적 적인지를 감시하여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은 군사적인 것일 뿐 아니라 영적입니다. 이 선과 악의 충돌은 지금과 같은 마지막 때에 계속되어 예슈아의 재림 직전에 벌어질 대전(大戰)으로 마무리지어질 것입니다.

예슈아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짐을 보거든 끝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코 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마 24:3~44).

저희 공동체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모두 테러 공격이 일어난 그 시점에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현장으로부터 1km 떨어진 곳에서요. 샬밭(안식일) 예배 때 모두

함께 자비와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환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세계 열방에서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렘 30:7, 단 12:1, 율 2:31~32).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요.

번역- 고병현

Shaul Byunghyun Jo